

취약한 내부구조·형식적 안전점검·소방 시스템 미흡

유형주점 화재 참사 키웠다

7 광주일보
제17513호 2006년 7월 31일 월요일

‘사람잡은’ 무더위

우렁이 잡던 60대 올 첫 일사병 숨져

잠마 뒤엎 땀방 아래서 우렁이를 잡던 60대 일사병으로 숨졌다. 광주·전남에서 일사병 사망 사고는 올 들어 처음이다. 지난 29일 낮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무진로 인근 논도랑에서 우렁이를 잡던 65·광산구 월곡동씨가 쓰러져 숨져 있는 것을 부인 이모(61)씨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병원 관계자는 건강이 좋지 않은 정씨가 무더운 날씨에 오랫동안 햇볕 아래 서 있다 일사병으로 숨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광주의 낮 최고기온은 31.6도(오후 4시3분)에 달했다.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

▲일사병(日射病·sunstroke)=‘열 증후군’(Heat syndrome)의 일종으로 강한 햇살이 내리쬐는 한낮에 무리하게 일이나 운동을 할 경우 땀을 많이 흘려 몸 안에 수분과 염분이 모자라 생기는 병. 노약자나 어린이에게 잘 발생하며 구토·메스꺼움·두통·근육 경련·의식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햇볕 아래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람은 우선 시원한 곳으로 옮긴 후 다리를 높여 준다.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몸의 열이 올라가면 찬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덮어주고 얼음찜질을 계속해 체온을 낮춰 주면서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일사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부에 자외선 차단크림을 발라주고, 모자나 양산을 쓴다. 단백질 음식을 자주 섭취하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좋다. 하지만 더운 날씨에 음료수를 많이 마시면 고혈당으로 소변이 많이 배출돼 탈수를 초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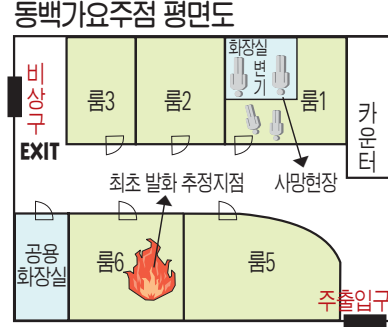
유사취발유 판매업자 영장

광주 북부경찰청은 30일 유사취발유를 판매하려다 불을 낸 업자 채모(42·광주시 북구 신안동)씨에 대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본보 29일자 3면) 경찰에 따르면 채씨는 지난 28일 오후 1시40분께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삼익아파트 뒤편 공터에서 냉동탑차로 위장한 트럭 안 탱크로리(용량 3천ℓ)에 적재한 유사취발유를 양수기를 이용, 작은 탱크로 옮기려다 불을 내 차량 2대와 나무 등을 전소시킨 혐의다. 채씨는 쉐보레·볼보·메탈알코올을 각각 6대 2대 2로 섞어 총 9만7천200ℓ의 유사취발유를 만들었으며, 지난 2월부터 한 통(18ℓ)에 1만8천원씩 팔아 9천72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채씨는 자신의 명함을 주차된 차 유리에 꽂아놓은 뒤, 연막이 오면 직접 만나 시중보다 ℓ 당 400~500원 싸게 유사취발유를 판 것으로 알려졌다. 채씨는 화재 발생 후 곧바로 달아났다가 하루 뒤인 29일 낮 경찰에 자수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완도, 일가족 등 4명 사망·8명 질식

화재에 취약한 유형주점의 내부 구조가 화목하고 단란한 가족의 꿈을 앗아가 버렸다. 열악한 소방체계와 형식적인 전기 안전점검은 작은 화재를 대형 참사를 키웠다. ◇화재 발생=지난 29일 밤 11시20분께 완도군 완도를 군내리 ‘동백 가요주점’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김순전(59·완도읍)·이경례(여·57)씨 부부, 김씨의 처남택인 박수은(여·37·완도읍)씨와 아들 이강우(12·초등학교 4년)군 등 4명이 숨졌다. 다른 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최모(여·27)씨 등 8명도 연

기에 질식사해 인근 대성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숨진 이씨는 병 치료를 위해 휴가를 내고 고향에 온 막내동생 동석(37)씨가 서울로 다시 올라가게 되자 이날 큰 동생 동호(47·완도읍)씨 가족(박수은·이강우 등) 등 일행 7명과 함께 저녁식사 후 송별회를 하던 중이었다. 불이 나자 동호씨는 동생 동석, 딸 2명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왔지만 나머지 일행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번을 당했다. 불은 34평(112㎡) 크기 단층 목조 건물 내부를 모두 태우고 1시간 20분에 만



에 꺼졌다. 경찰은 “6호실에서 매캐한 연기가 나기 시작했다”는 목격자들의 말로 미뤄 노래방 기계 주변의 누전이나 전기합선 등으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인명피해 왜 컸나=사사고 난 유형



전기누전으로 추정되는 불이 발생, 12명의 사상자를 낸 완도의 유형주점 내부.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과 도료를 많이 사용했다. 내부 구조가 복잡, 희생이 컸다. /완도=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완도·고흥 등 전남 12개 군 전문 구조차·구조대원 없어

모두 12명의 사상자를 낸 완도 유형주점 화재는 미흡한 소방시스템 때문에 참사를 막지 못했다. 완도소방과출소는 화재발생 신고를 받은 뒤 4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으나 인명 피해를 줄이지는 못했다. 파출소에 근무하는 9명 중 현장에 출동한 7명의 소방대원은 불을 끄는 데 급급했고, 119 구조차와 전문 구조대원이 없어 인명구조를 할 수 없었다. 구조대원을 실은 구조차는 완도에서 50km 떨어진 해남소방서에서 출발, 화재 발생 40분 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 이들이 도착했을 당시 이미 4명은 숨진 상태였다.

현재 전남도내 22개 시·군에서 완도군처럼 소방서가 아닌 소방파출소만 설치되고 구조차와 구조대원이 없는 곳은 ▲곡성 ▲화순 ▲구례 ▲장흥 ▲강진 ▲무안 ▲함평 ▲장성 ▲완도 ▲진도 ▲신안 ▲고흥 등 12개 지역에 이르고 있다. 이들 지역은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20~60km가량 떨어진

인근 소방서에서 구조차 등 각종 장비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구조차는 유압(油壓) 스프레더(spreeder·문 등을 강제로 열 수 있는 기구)와 발전기·에어백·급속 절단기 등을 갖추고 있어 현장 진입이 어려운 경우 외부에서 벽을 뚫을 수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주점은 1층 단층건물로 화재 당시 경보음이 울리지 않았다. 특히 벽돌로 외벽을 두껍게 만들고 화려한 내부장식을 위해 도로 등 화학물질을 사용해 유독가스가 많이 발생했다. 또 방음을 위해 각 룸의 창문까지 모두 스티로폼으로 막고, 복도 폭이 1.4m로 좁아 유독가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해 인명피해가 컸다. 이 유형주점은 지난 2001년 8월 음식점에서 업종을 변경했다. 구조에 나섰던 한 소방관은 “입구에 들어서려는 데 전기 스파크가 튀었다”면서 “건물 내 전기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아 전기 차단 등을 우려해 현장 진입을 신속히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허술한 안전점검=업주 최씨는 “그 동안 손님이 없어 발화 지점으로 보이는 방을 비워뒀다가 최근 휴가철을 맞아 사용하기 시작했다”면서 “화재 당일에도 몇 차례 손님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오랫동안 전기사용을 중단했다가 다시 전기를 사용하면서 누전으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주점은 ▲2004년 3월29일 ▲2005년 4월 29일 ▲2005년 11월9일 등 해남소방서가 세 차례에 걸쳐 실시한 안전관리 점검에서 모두 합격점을 받았다. 전기안전공사 지난 1월19일 실시한 안전점검에서도 누전·전선불량 여부·차단기와 개폐기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점검이 형식적이지 않았느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찰은 30일 업주 최모(52·완도읍)씨 등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완도=정은조기자 ejchung@kwangju.co.kr



연예2차 동림이 대주 피오레 1,300여 부대 중 353부대 353부대 문의 (062)366-4220

텔런트 박시연 광고계약 소송 패소



○텔런트 겸 CF 모델인 박시연(본명 박미선·사진)씨가 광고계약 위반과 관련한 법정 다툼에서 패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주현 부장판사)는 30일 화장품 제조·판매 회사 엔프라니가 “광고계약이 끝나기 전 경쟁사 CF에 출연해 손해를 봤다”며 박시연씨와 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

○재판부는 “박씨는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업종상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에 출연하지 않을 계약 의무를 위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

○박씨는 지난해 3월 엔프라니와 1년 간 모델 계약을 했으나 계약이 끝나지 않은 올 1월 모 화장품 회사 광고 모델로 출연하다 엔프라니로부터 2억9천여만원의 소송을 당했다고. /연합뉴스